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xiety on Internet Addiction Risk of the Probation Youth

이재경*, 정슬기**, 김지선**, 이계성***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삼사랑병원***

Jaekyoung Lee(jklee@cs.ac.kr)*, Sulki Chung(chungs@cau.ac.kr)**,

Jiseon Kim(swjs28@naver.com)**, Kyeseong Lee(drkslee@hot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서울소재 보호관찰소 1개 곳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청소년 200명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1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 불안, 인터넷중독의 구조적 관계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beta=.284(p<.01)$ 이었고,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beta=.396(p<.05)$ 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위험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beta=.131(p<.01)$ 이었으며,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예방 및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보호관찰 청소년 | 성장기 부정적 경험 | 불안 | 인터넷중독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xiety,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youth probationers. The sample included 200 young probationers in Seoul probations office who were asked to fill out a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Results from path analysis showed tha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the risk for internet addiction ($\beta=.396, p<.05$), and higher anxiety also predicted the internet addiction ($\beta=.131, p<.01$). Mediating effect of anxiety between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was also confirmed.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prevention efforts for internet addiction is needed for this vulnerable population, and also implied the need to focus on dealing with childhood experience and anxiety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 keyword : | Youth Probationers |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 Anxiety | Internet Addiction |

*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한국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08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9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22일

교신저자 : 정슬기, e-mail : chungs@cau.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면에는 인터넷과다사용 혹은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만 5세에서 54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7%이고, 인터넷 중독위험군 수는 2,286천명이며, 전년 대비 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연령별로는 만 10세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이 11.7%, 유아동 6.4%, 성인 5.9%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위험군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2011년 이후 10.4%, 10.7%, 11.7%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낮은 학업수행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취미활동 및 독서시간의 감소,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 생활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또래에 비해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실제로 인터넷 중독위험군의 청소년들은 잠재적 위험군 및 비중독군에 비해 부모와 의사소통에서의 문제, 여가활동의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인터넷 게임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몰두하면서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따라 충동적이며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며,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게임에 노출될수록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7].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과 이로 인한 중독의 경험은 청소년시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성취를 어렵게 하고,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과 특성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수진은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짐을 경고하고 있다[8]. 김현수도 개인 내 또는 사회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9]. 문제행동 성향으로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현실 회피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인터넷중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문제행동 성향이 강화되는 악순환적 관계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면 문제행동 성향을 갖는 청소년 중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중독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비행 등 소년범죄를 통해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 자기통제,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성이 높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10]. 또한 청소년 시기의 비행행동 경험은 주위로부터의 비난과 처벌이 뒤따르기에 자아존중감이 계속 훼손되어 낮아지므로 비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11]. 이에 대해 김은영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 자존감, 심리적 안정감이 낮을수록, 공격성과 가족불화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7].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원인으로 우울, 자존감, 스트레스 등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정서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4][12-14].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대인관계, 애착 등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인터넷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현실생활의 어려움을 잊고,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15-17]. 즉, 학업 및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불안이 가중되어 인터넷중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전에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중독의 위험 및 사회적응에 취약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예방과 치료적 접근은 이미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더욱 절

실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학대와 방임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부재 등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환경과 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비행 및 문제행동을 야기한다.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감정의 억제나 조절의 기능이 미숙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기에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7]. 이현주와 고현진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요인을 밝히고 있는데, 가족의 기능이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선미는 부모-자녀간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위험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장미경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거나 부모양육태도가 좋지 않을수록 인터넷게임중독경향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18]. 즉, 가족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몰입성이 높은 인터넷게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5],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의한 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은 청소년 중에서도 인터넷중독의 위험이 높으며 이들이 경험한 성장기 부정적 사건과 불안은 인터넷중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 비행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인터넷중독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19-21].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사회적 취약성으로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에 이들에 대한 개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의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및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이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보호관찰 청소년과 인터넷중독의 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원에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다[22]. 보호관찰은 청소년의 지위로 인해 규정되는 지위비행을 포함하여 법으로 금지된 범죄 등의 행위에 의한 법적 처분 등 일탈행위에 따른 결과이다.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위는 많은 원인이 있으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와 맺은 애착관계가 약해질 때 사회적 규범의 도덕적 타당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비행 및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23]. 즉, 애착의 결여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발달모형은 청소년이 사회와 친사회적 유대를 형성해야 하고 가족은 일관된 긍정적 환류를 통해 청소년을 강화하여 친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의미있는 타자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24]. 즉,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여가 애착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이론은 비행에 대한 인과적 영향이 순환적으로 작용함을 제시하는데, 청소년 초기에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인습적 사회에 적응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더불어 청소년 중기는 이러한 가족의 영향이 친구, 학교, 청소년 문화로 대체된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 범죄의 원인에 대해 이들 이론들은 부모와 가족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장과정에서의 부모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애착관계의 형성 및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가족을 중심으

로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보호, 제공, 참여의 권리[11]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비행 및 문제행동, 범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은 법적 처분의 심각성과 정도에 상관없이 사회적응에 취약한 존재이고, 비행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고려할 때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있어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 현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전환하는 도구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예상된다[16].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은 주로 온라인 게임 및 커뮤니티로 '실제의 나'가 아닌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나'로서 존재할 수 있고[26],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28], 존경의 대상 혹은 무서운 대상이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인터넷은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인터넷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수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생활속에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 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 그 결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은 10.4%(약 68만 명 추정)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28].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수면부족, 사회적 이탈, 심리적 우울증 등 일상생활의 장애수준이 높고,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폐해는 적절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벗어난 보호관찰 청소년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비행과 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제법의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중요하다. 더욱이 제법은

청소년 개인의 복지와 재사회화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24], 인터넷중독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2. 인터넷중독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1 성장기 부정적 경험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 사회, 환경, 인터넷변인 등 다양하다. 인터넷 중독 원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연구들은 우울, 외로움, 자존감 등 개인 및 성격관련 변인,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 주변환경 변인, 인터넷사용유형, 시간 등 인터넷 관련 변인 및 정서적, 사회적 요인 등을 제시한다[2][12][13].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대와 방임,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부재 및 관계의 어려움 등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11], 이러한 성장기의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체계는 각각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중 가족체계는 청소년에게 가장 근접한 체계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성원 간의 갈등 경험 등은 비행 및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4].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자녀의 훈육수단으로 물리적 방법을 선호하고, 자녀들에게 거부적이며, 비밀관적인 양육과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머니의 무관심, 냉대, 거부 등은 자녀의 공격적인 행위를 촉발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30]. 이에 Robert와 Feetham은 개방적 체계로서 가족을 존속시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의 역할 및 관계로 이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31]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고[32], 비행 및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33], 학교적응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5].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은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비행 및 문제행동, 사회부적응, 발달의 미성숙을 야기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기의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과도 관계가 있는데, 조준범은 부모로부터 폭력경험, 부부폭력 경험, 부모와의 낮은 상호작용 등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게임중독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34]. 뿐만 아니라 최태산과 안재영도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이해정도, 부모의 칭찬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게임중독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어[35],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가족요인에 의한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로써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2 불안

자아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중독은 자아 기능의 장애와 초자아 기능의 병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36]. 자아의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인데, Krystal은 감정 조절의 장애로 중독이 된다고 주장한다[37]. 감정 중 불안은 위험한 사건이나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무의식의 신호를 자아가 감지하여 나타나는 감정으로,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사람들은 감정이 밀려오기 전에 불안을 신호로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미리 준비되거나 조직화된 감정을 경험하기보다 구분되지 않은 불쾌한 감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36].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지 않은 청소년은 발달과업 중 정서발달이 지연됨을 경험하게 되고[11], 조직화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불쾌한 감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불안과 인터넷사용, 중독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고, 부모 및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성장기의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을수록 불안으로 인해 인터넷중독의 위험은 증가됨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두 번째 연구문제로 불안과 인터넷중독위험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 대해 강희양과 손정락은 정서변인 중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이 높을 경우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4]. Shepherd와 Eddmann(2005)은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성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수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 불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8]. 즉, 불안과 인터넷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안의 경험과 이로 인한 인터넷중독의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과정에서 성장은 부정적 경험과 이로 인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지막 연구문제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청소년 보호관찰제도에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호관찰 청소년이다. 조사를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 중 서울시 소재 보호관찰소 1곳을 편의표집 하였고,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으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청소년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에게만 보호관찰관의 안내에 따라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200부를 배포하여 197부(98.5%)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인터넷중독

보호관찰 대상자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성은 Young(1996)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8]. 이 척도는 김혜원이 번안하였으며,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39]. 각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 관련 강박적 행동, 경제적 어려움, 학업 부진, 가정에서의 소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적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로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측정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성장기 부정적 경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Dube 외(2002)의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척도를 사용하였다 [40]. 이는 성인의 알코올 사용과 어린 시절 스트레스 유발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언어/정서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어머니에 대한 폭력 노출, 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의 별거/이혼 등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한 총 6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언어, 신체학대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 노출에 대한 3개 항목은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41])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문항이며, 경험여부를 코딩하여 각 문항별로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율척도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기 부정적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로 안정적이었다.

2.3 불안

보호관찰 청소년의 불안은 BSI(Brief Symptom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SI[42][43]는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R)의 단축형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SI는 임상현장에서 정신적 증상과 정서장애 증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광일 외(1984)가 표준화하였다[44].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 불안 등 9개 증상을 측정할 수 있고, 응답자는 검사

당일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리커트형 5점 척도에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심영숙의 연구[45]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로 안정적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활용한 자료분석방법은 첫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둘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부정적 경험, 불안, 인터넷중독 위험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17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83.8%이었고, 중학생(14-16세)은 16.2%로 고등학생이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86.3%로 여자 13.7%보다 많았으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구월소득은 100-200만원이 23.4%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19.8%, 200-300만원 14.7%, 100만 원 이하 7.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까지 보호관찰 횟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45.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26.9%, 세 번째 18.3%, 네 번째 이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 중 50% 이상은 2회 이상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의 높은 재범률을 보여주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성장기 부정적 경험, 불안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인터넷중독은 총 80점의 범위에서 최소값 0점, 최대값 48점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8.14(SD=10.95)이었다. 인터넷중독의 선별이 4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인터넷중

독을 의심할만한 대상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56점의 범위에서 최소값은 0점, 최대값은 2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38점(SD±4.80)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정신증상 중 불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총 4점의 범위에서 최소값 0점, 최대값 4점이었으며, 평균은 .69(SD=.68)점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197)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성별		
중학생(14-16세)	32	16.2	남	170	86.3
고등학생(17세 이상)	165	83.8	여	27	13.7
가구 월소득			보호관찰 횟수		
100만원 이하	15	7.6	첫 번째	89	45.2
100-200만원	46	23.4	두 번째	53	26.9
200-300만원	29	14.7	세 번째	36	18.3
300만원 이상	39	19.8	네 번째 이상	14	7.1
무응답	68	34.5	무응답	5	2.5

표 2. 기술통계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중독	192	0	48	8.14	10.95
성장기 부정적 경험	194	0	29	3.38	4.80
불안	195	0	4	.69	.679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r=.247$), 불안($r=.434$)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의 관계는 $r=.288$ 로 이 역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정적 경험을 할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성장기 부정적 경험을 할수록 불안정도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피어슨 상관관계계수가 .9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n=197)

	인터넷	성장기	불안
인터넷	1	.247**	.434**
성장기		1	.288**
불안			1

* $p<.05$, ** $p<.01$

2. 연구모형 검증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도지수는 $\chi^2=10.61$ 로 유의수준 $p<.05$ 보다 큰 $p=.10$ 이었다. 이는 검증을 위한 모형으로 적합함을 의미하지만, χ^2 값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또 다른 절대적합도지수인 RMSEA를 확인하였고, .063으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인 .05 ~ .08속하였다. 다음으로 증분적합지수로 TLI, CFI, NFI를 확인하였는데, 각각의 값이 1에 가까울 때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TLI=.776, CFI=.936, NFI=.886이었고, TLI와 NFI 지수가 다소 낮지만 CFI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절대적합지수와 함께 고려했을 때, 연구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chi^2(p)$	df	RMSEA	TLI	CFI	NFI
연구모형	10.61(.10)	6	.063	.776	.936	.886

측정변수들의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표 5]와 같다. 연구문제에 따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장기 부정적 경험에서 인터넷중독의 경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284$ 이었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p<.01$ 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기 부정적 경험을 할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에서 인터넷중독의 경로는 $\beta=.396$ 으로 유의확률은 .054이었다. 이는 유의수준 $p<.05$ 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는 $\beta=.131$ 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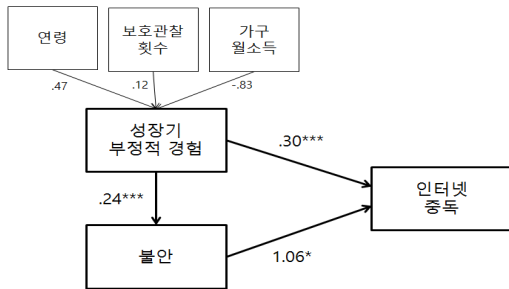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p
성장경험→불안	.241	.284	.059	4.101	.000
성장경험→인터넷	.299	.131	.155	1.929	.000
불안→인터넷	1.065	.396	.182	5.860	.054

모형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불안과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높이고, 불안 역시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고,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모형에서 마지막 연구문제는 불안이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불안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분석결과 Sobel 통계량은 3.335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 갖는 매개효과와 검증으로 불안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 사이에서 정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다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성장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의 영향이 불안을 매개로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장경험→불안	.284	-	.284
성장경험→인터넷	.131	.113	.244
불안→인터넷	.396	-	.396

V. 논의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인터넷중독에 취약한 사회구조와 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론과 선행연구고찰에 따라 심리정서적 요인과 인터넷중독 위험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응답이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여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과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불안 역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불안수준을 높이며,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불안에 대한 심리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청소년기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충격은 만성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행위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46-48]. 하지만 인터넷중독과 관련하여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김동식은 부모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비행행위를 분석하였는데[46],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감 및 자살생각, 비행행위의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2]. 이는 부모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 빈도와 정신적·행위적 장애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부정적 어린시절의 경험과 음주의 관계를 연구한 Dube 외는 부정적 경험이 음주 및 음주의 시작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48].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정신건강 및 음주 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종속변수가 일치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확인한 부분이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정서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어머니에 대한 폭력 노출, 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의 별거/이혼과 같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은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비행 및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로만 관리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권과 복지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심리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주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중독 및 다른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 청소년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고, 불안은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강희양과 손정락(2007), 최은미 외(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4][49]. 이와 관련하여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 대한 여지영 외(2014)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50], 이 연구는 애착과 관련한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애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심리정서적 상태로 Milkulincer와 Shaver(2007)는 애착인물 관계에서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인 경험이 외로움의 발생원인으로 보고 있으며[51], 여지영 외(2014)는 이러한 애착불안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50]. 이 연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요인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잘 형성되지 않은 애착으로 인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이 갖는 불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추후 연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매개변수(연구에서는 ADHD의 매개효과를 검증)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던 하지만[15], 전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일반적인 불안 또는, 애착 등 관계에서 오는 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불안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은 가족요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및 정신건강문제와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

고 이에 대한 접근이 학교 및 교정기관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불안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 위험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이러한 경험이 불안이라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자극하여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의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는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시도를 모색할 때, 사회환경과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 모두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취약성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보호관찰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중독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이다. 다시 말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도화 한다면 인터넷중독 및 다른 심리정서적, 정신과적 문제들의 선별과 진단을 통해 예방과 치료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고,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호관찰제도 내에서 범죄 및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중요하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와 재사회화의 대상으로써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중독 및 비행, 범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아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인터넷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53].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기 부정적 경험, 불안, 인터넷중독 위험성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서울시 보호관찰소 1개소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표집의 한계가 있고, 조사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내용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 더 풍부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들의 경험하는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 인터넷중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 [2] E. Esen and M. Siyez, "An investig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in predicting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urkish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Guidance Journal*, Vol.4, No.36, pp.127-138, 2011.
- [3]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6.
- [4] 강희양, 손정락,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4호, pp.733-744, 2007.
- [5] 윤명숙, 김남희, 박완경, "중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에 미치는 게임 및 가족, 여가요인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pp.309-337, 2014.
- [6] 김은엽, 이지영, "중고등학생의 평일 인터넷 게임 시간과 가정환경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5326-5336, 2012.
- [7] 김은영,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 된 심리 사회적 특성,"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pp.1-23, 2009.
- [8] 이수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문제행동 성향과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을 이용한 성별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3호, pp.237-257, 2008.
- [9] <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
- [10] 김은영, "사회내처우 비행청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273-297, 2008.
- [11]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 [12] 장재홍, 김광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4호, pp.157-183, 2009.
- [13] 김수아, 김세은, "한국 사회의 미디어 중독 연구 경향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3권, pp.5-46, 2012.
- [14] 주석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지역적 특성 비교: 서울특별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8권, 제4호, pp.121-147, 2011.
- [15] 노석준, 이동훈, 김인숙, 송연주,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ADHD, 우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53, 2011.
- [16] R. J. Rotunda, S. J. Kass, M. A. Sutton, and D. T. Leon, "Internet use and misuse: Preliminary findings from a new assessment," *Behavior Modification*, Vol.27, pp.484-504, 2003.
- [17] R. S. Tokunaga and S. A. Rains, "An evaluation of two characterizati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times spent using the Internet, and Psychosocial proble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pp.512-545, 2010.
- [18] 이현주, 고혜진,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일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고위험사용자에 대한 비교분석," *사이버 사회문화*, 제3권, 제1호, pp.85-114, 2012.
- [19] 장미경,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및 우울과 부모가 지각한 청소년 자녀의 게임중독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호, pp.47-66, 2010.
- [20] 김도우, "온라인게임 중독의 유형분석: 온라인 게임의 사회유대 및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2호, pp.3-24, 2008.
- [21] 이상구,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6권, 제2호, pp.157-182, 2010.
- [22] 한상암, 이효민, "온라인 게임중독과 청소년범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권, 제1호, pp.229-244, 2006.
- [23] 법무부, *보호관찰통계*, 법무부, 2015.
- [24] 홍봉선,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아동복지론 4판*, 학지사, 2014.
- [25] L. Siegel and J. Senna, *Juvenile delinquency*, CA: Wadsworth, 2000.
- [26] 김용택, 이진우, 양지혜,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pp.29-55, 2008.
- [27] 오세연,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pp.165-189, 2013.
- [28] 행정안전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2011.
- [29] 문현실, 고영삼, 이은경,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제28권, pp.58-80, 2011.
- [30] D. Olweus,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Vol.35, pp.1171-1190, 1994.
- [31] S. Roberts and L. Feetham,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across three areas of relationships," *Nursing Research*, Vol.31, No.4, pp.231-235, 1982.
- [32] 이수연,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 요인에

- 관한 고찰” 청소년행동연구, 제14호, pp.89-104, 2009.
- [33] 오창규, *비행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가족기능·가족갈등과 제비행과의 관계*, 전북대학교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 [34] 조춘범,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폭력비행이 미치는 영향-인터넷 게임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pp.93-121, 2010.
- [35] 최태산, 안재영,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기술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pp.131-140, 2010.
- [36] 조근호 외, *중독재활 총론*, 서울: 학지사, 2010.
- [37] H. Krystal, “The genetic development of affects and affect regression,” *The Annual of Psychoanalysis*, Vol.2, pp.98-126, 1974.
- [38]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6.
- [39]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pp.91-117, 2001.
- [40] R. Dube, F. Anda, J. Felitti, J. Edwards, and B. Crof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ersonal alcohol abuse as an adult,” *Addictive Behaviors*, Vol.27, pp.713-725, 2002.
- [41] M. Straus and J. Gel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1990.
- [42] R. Derogatis,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 Baltimore, MD: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1977.
- [43] R. Derogatis, *BSI Brief Symptom Inventory: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 manual (4th Ed.)*,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1993.
- [44] 김광일, 김제환, 원호택,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 1984.
- [45] 심영숙, *성찰기능과 정신병리의 관계: 의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46] 김동식, “부모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비행행위,” *예방의학회지*, 제40권, 제3호, pp.218-226, 2007.
- [47] B. Birmaher, N. Ryan, E. Williamson, A. Brent, J. Kaufman, E. Dahl, J. Perel, and B. Nelson,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1),”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5, No.11, pp.1427-1439, 1996.
- [48] R. Dube, J. Miller, W. Brown, H. Giles, S. Vincent, M. Dong, and F. Anda,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association with ever using alcohol and initiating alcohol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8, No.4, pp.444.e1-444.10, 2006.
- [49] 최은미, 신점란, 배재홍, 김명식, “대학생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329-341, 2014.
- [50] 여지영, 강석영, 김동현, “초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 외로움의 매개효과: SNS 집단과 게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2권, 제1호, pp.47-69, 2014.
- [51] 진은영, 서영미,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0-437, 2012.
- [52] 송은지, “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690-698, 2012.

저 자 소 개

이 재 경(Jaekyoung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정신건강 및 중독과 사회복지실천 등

정 슬 기(Sulki Chung)

정회원



- 2002년 6월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h.D. (사회사업박사)
- 2002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회복지, 중독문제 예방 및 정책, 사회구조와 중독 등

김 지 선(Jiseo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카프성모병원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관심분야> : 정신건강 및 중독, 사회복지실천 등

이 계 성(Kyeseong Lee)

정회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사수료
- 2015년 8월 ~ 현재 :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치료재활센터장 연구원장

<관심분야> : 약물/행위 중독, 사범정신의학, 중독 폐해 예방 등